



성혼선언문

두 사람이 처음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,
수많은 스침 중에 기적처럼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.

봄이 오듯 자연스럽게,
바람이 불 듯 당연하게,
이들은 오늘, 부부라는 이름으로 마주 섭니다.

이제 서로의 하루가 되고, 서로의 안식이 되어
함께라는 길을 걸어갈 두 사람.

이 아름다운 약속 앞에
우리는 기꺼이 증인이 되어,
이들의 사랑과 동행이
삶의 긴 여정 속에서 빛나기를 응원합니다.

지금 이 순간,
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마음이 지켜보는 가운데
두 사람의 결혼이 성혼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.

2025년 월 일

